현 군수 재선 가도에 前 도의원들 도전 거세

해남군수

풀뿌리 의정 경험 내세워 도전장
무소속·安 신당 후보도 표밭갈이

차기 해남군수 선거전은 재선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소속의 박철환(56) 군수에 맞서 풀뿌리 의정활동 경험을 앞세운 전직 전남도의원들의 도전이 거셀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김병욱(51)·김석원(56)·이석재(68) 전 전남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무소속의 김정현(62) 초당대 외래교수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인 윤광국(54)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박 군수는 현재까지 무난하게 군정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잘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박 군수는 농어업의 자립기반이 확고히 자리매김 되어 있는 만큼 농어업 매출 1조원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임기 동안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병욱 전 전남도의원은 의정활동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의원 당시 음주 운전사고로 낙마했다. 농업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다 농업을 직접 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도의원 시절 적극 추진해 반영했던 농민들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농업 군(郡)인 해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경제 마케팅을 통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석원 전 도의원의 경우 왕성한 의정활동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왔고, 해남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도의원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인지도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그는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해남군의 땅끝 권, 대흥사 권, 우수영 권 등 관광지를 권역별로 나눠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과 테마파크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 해남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안철수신당	무소속
이름(나이)	**김병욱**(51)	**김석원**(56)	**김정현**(62)	**박철환**(56)	**윤광국**(54)	**이석재**(68)
주요경력	· 개미농장 대표 · 전)전남도의원	· 민주당 지역위 부위원장 · 전)전남도의원(재선)	· 초당대 외래교수 · 전)국방부 이사관	· 해남군수 · 전)해남군의원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	· 전)전남배구협회장 · 전)전남도의원

※ 후보는 가나다 순

전 국방부 이사관이었던 김정현 교수는 다소 인지도가 낮지만, 지역에서 충·효사상을 주제로 한 강연을 활발히 하며 노인층을 상대로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김 교수는 해남군의 무한한 자연 자산을 개발·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된 수익보장을 위해 신개념 유통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석재 전 도의원 또한 지역에서 3선의 전남도의원을 지낸 관록과 경험을 앞세우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 전 도의원은 두 차례의 군수 도전을 통해 지역구에서의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박철환 군수와 맞붙어 2000여 표 차이로 떨어진 만큼 '절치부심'하며 바닥 민심을 다져가고 있다.

'안철수 신당' 측의 윤광국 실행위원은 민화식 전 군수의 처남으로, 민 전 군수의 지원과 '안풍'을 탈 경우 '다크호스'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는 현재 해남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지역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윤 실행위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

■ 이슈&변수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 최대 쟁점
낙후지역 주요 공약 대결도 볼만

차기 해남군수 선거전에서 쟁점은 무엇보다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소 유치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이를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하는 게 현 해남군의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으로 갈렸던 여론이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여기에 출마예상자 대부분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이에 따른 정책공약 대결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낙후되어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어떤 후보가 구체적으로 내세울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철환 군수는 재임기간 추진해 온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재선을 통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다른 후보들 또한 해남지역의 자원 활용과 친환경 농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민화식 전 군수의 행보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처남인 윤광국 한국감정원 호남지역 본부장이 '안철수 신당' 측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민 전 군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윤 본부장은 '신당' 바람이 강하게 불고, 민 전 군수의 조직이 뒷받침 해준다면 한판 승부를 벌여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

현 군수, 전·현 道 민원실장 등 5명 출사표

영암군수

민주당 공천 누가 받을지 관심
安신당·무소속과 3파전 예고

내년 영암군수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현 김일태 군수와 박준영 전남지사의 핵심 정무라인 중 한 명인 최영열 전남도 민원실장, 안철수 신당 후보 등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나오는 김 군수와 최 실장, 강우석 전남도의회 의원 간의 치열한 공천 다툼과 여기서 승리한 후보와 안철수 신당 내지는 무소속 후보 간 최종 승부로 압축된다.

현재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5명이다.

강우석 의원은 과거 농업·낙농 단체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 내 인맥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영암 농업경영인 회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민주당 공천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2선 의원이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위원장과 교육사회위원 등으로 도의회 활동을 하며 입지를 넓혔다. 또 삼호고등학교 개교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탄탄한 지지기반을 토대로 3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일태 군수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두 번의 군수 재임 기간 쌓인 인맥과 경험이 가장 큰 무기이며, 무난한 군정을 펼쳤다는 평을 받아 3선을 자신하고 있다.

그는 재임기간 월출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기찬랜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관광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재임기간 영암군의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할 정도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한데다 친환경 농업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 농가소득 창출의 틀을 갖추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일부 사회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가 내년 선거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전남도 민원실장들의 대결도 예상된다. 김재원 전 전남도 민원실장은 전남도청에서 쌓은 이론과 대학에서 닦은 실무를 겸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세한대 교수인 그는 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지내며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삼호주택공사 아파트 유치, 일로~시종 구산간 도로 건설 등에 힘을 보탰다. 그는 농민, 농업, 농촌 문제 해결, 명문학교 육성, 도시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역의 현안으로 꼽았다.

최영열 전남도 민원실장은 지난 10여 년간 박준영 지사와 함께하며 도지사 선거와 박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경선 등을 준비하는 등 선거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 같은 경험은 당내 경선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영암이 고향인 박 지사의 지지 기반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어 본선에서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한 교육환경, 문화시설, 노후복지시설의 부족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으로 분류되는 전동평 알파중공업 대표는 '성공한 CEO'라는 이미지로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다. 전 대표는 전국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전남도의원을 4번이나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표밭을 누비고 있다. 기업 경영 노하우를 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오광록·대성수기자 kroh@

■ 영암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신당	민주당
이름(나이)	**강우석**(59)	**김일태**(69)	**김재원**(56)	**전동평**(53)	**최영열**(50)
주요경력	· 전남도의회 의원 · 전)영암농업경영인 회장	· 영암군수 · 전) 전남도교육위 의장	· 세한대교수 ·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 알파중공업 사장 · 전) 전남도의원	·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 전)한국청년회의소 영암회장

※ 후보는 가나다 순

유권자 많은 삼호읍 표심 어디로
인구 유출·주거환경 대책 주목

내년 영암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공천을 누가 거머쥐느냐'이며, 유권자가 많은 삼호읍의 민심이다.

현재 김일태 군수와 최영열 전남도 민원실장, 강우석 전남도의회 의원이 당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있는 김 군수는 강한 지지기반을 토대로 세를 불리고 있고, 박준영 지사의 도지사 선거와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진두지휘했던 최 실장의 당내 기반도 탄탄해 후보 간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영암지역 농민단체 등이 김일태 군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이 문제 또한 선거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숱한 법정 다툼으로 번진 이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선거 과정에 이슈가 될 수 있어 김 군수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또 지역 정가에서는 "김 군수의 세가 강하니, 일부 후보들은 차기 군수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년 선거는 이름을 알리는 전초전으로만 여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선보다는 김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묶이는 차기 선거를 노리기 위해 내년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삼호읍의 표심도 변수다. 현재 삼호읍 인구는 2만3000여명인데, 이 중 1만6000여명이 외지 이주민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도 삼호읍은 후보자들에게 고루 표를 주는 등 특정 후보만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가 불리한 후보들이 이곳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무안과 목포의 잇단 택지개발로 영암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현상도 내년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호중공업 등 지역 공단에 근무하는 삼호읍 주민들이 최근 인근의 남악·옥암지구로 빠져나가고 있어 삼호읍의 아파트 건설 등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삼호읍을 발전 방안도 선거 판세를 이끌어 가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광록·대성수기자 kroh@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융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융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융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 룸9개, 4층 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 (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융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자구 영광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찰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융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